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민주통합당 박준영 전남지사

“親盧론 안돼... 호남 자존심 세우겠다”

만남사람=정후식 정치부장

여야가 18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광주일보의 독자 여러분의 바쁜 선택을 돕기 위해 여야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먼저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대선 주자인 박준영 전남지사 인터뷰를 통해 정치철학과 비전, 향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지사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예비경선(컷오프) 통과가 1차 관문이다. 통과를 자신했는데 근거는.

▲나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은 하지 않는다. 살아온 길도 다른 후보와는 다르다, 수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정치하게 살았으며 원칙을 중요시했다. 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내 공약을 보고 자발적으로 지지해주는 '의병'이 늘고 있다. 나의 공약은 내가 살아온 길과 일치하며, 진정성이 있기에 국민이 성원해 줄 것이다.

-결선투표를 포함한 경선안이 확정됐지만 모바일투표 반영 비율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다.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당은 생명에 있어진다. 당원 참여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지난 총선때 진보당도 모바일 때문에 흥역을 치렀다. 모바일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뢰밭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조작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패배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번 대선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정책으로 대결해야 했는데, 우리는 흥행 중심으로 갔다. 흥행은 반짝 인기를 얻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깊은 마음을 얻진 못했다. 민주당의 노선에 문제가 있었다. 연합과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연합할 때 서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가야한다. (통합진보당과 연합은) 국민이 민주당을 극좌로 이해하게 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은 중산층과 서민인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탐욕과 분노를 넘어, 혼란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어떤 취지인가.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큰 위기다. 돈을 가진 자의 지나친 탐욕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탐욕의 결과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곳곳에 불만이

‘정직한 농부 대통령’ 민심수용 각오 담겨 위기의 경제·남북관계 해결엔 내가 책임

깔리고,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울수록 공동체정신으로 뭉쳐야 한다. 경제 정의가 있고, 복지도 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무턱대고 대기업을 규제하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경제는 악화한다. 부자와 기업가는 공정한 룰에 따라 기업활동을 하고, 정부는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최근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번 대선에 나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이 왜 지난 대선에서 530만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겠는가.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참여정부 때 분열과 불만이 쌓여 그게 표출된 것이며, 그 책임은 참여정부에 있다. 참여정부의 실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등장하면 본선에 가서 새누리당에 지게 돼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것은 몇몇 사람의 탐욕만 추구했기 때문이며, 새누리당은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한 과거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지사직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도정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다. 컷오프를 통과하면 본 경선때도 지사직을 유지할 것인가.

▲8년간 도정을 운영해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차질은 전혀 없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고 한 시간 늦게 자면서 쟁기고 있다. 현재 경선에 뛰어들었기에 본경선 진출 후 지사직 사퇴 문제는 고민하지 않았고, 그때 가서 발표하겠다.

-‘정직한 농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정직한 농부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세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는 농부는 정직하다. 또 언젠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줄을 안다. 때에 따라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농부는 헌심을 생각하고 산다. 헌심은 곧 민심이다. 여기에는 민심을 따른다는 나의 각오가 담겨있다.

-F1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F1은 현재보다는 미래와 희망을 먼저 봐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을 건설하기 위해 2조원이 들어갔다. 우리가 박람회를 하면서 이 돈을 다 벌자고 하지는 않는

다. F1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것이다. 영암 서킷에 주말이면 다양한 경기가 열려 5000~1만명이 찾고 있다. 연간 적자가 200~300억원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영암에 모터스포츠클러스터 등이 건설되면 1만2000명의 고용과 대기업 서너개가 입주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 정부에는 지방분권 정책이 없고,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기존의 것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혁신도시 건설도 늦어져 버렸다. 재정과 교육, 경찰 등은 지방에 과감하게 넘겨서 창의력을 갖고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예산 따내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성격에 맞게 창의적인 사업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교육 공약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이 눈에 띈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빈부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선진국 가운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을 하지 않는 곳이 없다. 고등학교는 훌륭한 시민을 만드는 교육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 상태다.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북한이 시급해 해결해야 할 게 식량이다. 조건 없이 식량 지원하고, 영구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능 생애농업기법을 전수해줘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이전하면 일하기도 더욱 편하고, 민족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남은 어려운 지역이다. 대선보다는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사·도민이 지지해준 민주당은 그 자세가 돼 있지 않았다. 나는 민주당 당적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가치를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한 사람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호남은 안된다'는 정치공학적 고정관념이 짚은 밑감대로 이어져 호남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호남 후보로 당당히 당선돼 호남패배주의를 극복하겠다.

그동안 원칙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치했다. 국경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면 사·도민도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리=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암출신 ... 청와대 수석 거쳐 전남지사 3선

■ 걸어온 길

박준영 전남지사는 자신의 삶을 '고난과 극복'의 연속으로 표현했다. 가난 때문에 한때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민주화과정에서 언론사에서 해직되는 등 숱한 역경을 견뎌내야 했다. 그에게 삶을 가로막았던 고난은 강한 의지를 키워줬고 '농부처럼 깨끗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철학도 심어줬다.

1946년 영암 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목포중학교에 다닐 때 병중이던 아버지 대신 농사를 짓기 위해 고교 진학을 1년간 미뤄야 했다. 당시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경험은 훗날 전남도지사로 선출돼 그가 펼친 친환경 농업의 밑거름이 됐다.

또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1972년 중앙일보에 입사했지만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당했다. 해직 후 그는 미국 오하이오대학에서 신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청와대에 입성,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처장을 거쳐 국민정부 '얼굴' 역할을 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역사적 현장에 동행했고 '6·15선언'으로 알려진 남북간 합의문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2004년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도지사로 임명된 뒤 내리 3차례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미래산업, 기업유치, 해양관광활성화 등에 힘을 쏟았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정치권·관계·사회·문화·학계 인맥 촘촘

■ 박준영의 사람들

박준영 전남지사의 인적네트워크는 국회 의원 등 정치권 실세부터 현장의 농민까지 광범위하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처장을 거치며 쌓은 정치권 인맥과 지난 8년간의 도정을 수행하며 만난 공무원과 사회, 문화, 학계 등 지역인맥도 촘촘하다는 평이다.

정치권의 최대 지지 기반은 호남 출신 의원들과 구(舊) 동교동계 인사들이다. 지난 15일 서울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박 지사의 대선출마 출정식때 사회를 본 박해자(광주 서구갑) 의원이 가장 눈에 띈다.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정치행사에 사회를 보는 것은 이례적으로 박 지사와 박 의원 간 끈끈한 의리를 짐작하게 한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2008년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역임해 누구보다 박 지사의 정치·행정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을 비롯 이낙연·황주홍 의원 등도 우호적인 국회 인맥으로 통한다.

또 박 지사의 청와대 근무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지연 의원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 캠프에서는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이광수씨가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지난 3차례 도지사 선거 때마다 조건 없는 자원봉사를 펼쳐온 열성 지지자들은 가장 든든한 우군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orean Air flights to Hokkaido, Japan. Includes text: '한 여름 8월 평균기온 22.3°C 겨울에는 눈축제', '대한항공 전세기 3회 취항', '무안공항 왕복', and flight schedule for August 9, 13, and 16.